

- 주요 뉴스: 미국 7월 ISM 서비스 PMI, 3개월 만에 최고치, 경제 확장 지속 가능성 시사
 - 연준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의지를 재확인
 - 유로존 6월 소매매출, 전년동월비 감소,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
 - OPEC+, 9월 증산 목표를 일일 10만 배럴로 제시. 유가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1.6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하락[-4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매수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관련주 강세 등으로 0.5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
유로화가는 보합, 엔화는 0.5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 따른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7.8원, -2.6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8/3일	8/2일	전일대비			8/3일	8/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55.2	4,091.2	1.5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0%	2.75%	-4bp
	유럽	438.29	436.07	0.51%		독일	0.87%	0.82%	5bp
	중국	3,163.7	3,186.3	-0.71%	CDS 5y	한국	41bp	44bp	-3bp
	일본	27,742	27,595	0.53%		중국	82bp	87bp	-5bp
	한국	2,461.5	2,439.6	0.89%	위험 지표	EMBI+	-	434	-
환율	달러지수	106.38	106.24	0.13%		VIX	21.95	23.93	-8.27%
	유로화	1.0166	1.0166	0.00%		WTI유	90.66	94.42	-3.98%
	엔화	133.86	133.17	-0.52%	원자재	구리	346.7	351.9	-1.46%
	위안화	6.7580	6.7525	-0.08%		금	1,765.3	1,760.4	0.28%
	원화	1,310.3	1,304.7	-0.4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7월 ISM 서비스 PMI, 3개월 만에 최고치. 경제 확장 지속 가능성 시사

- 해당 지수는 56.7을 기록하여 전월(55.3) 및 예상치(53.5) 상회.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(55.6→59.9)의 견조한 증가세 등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가 침체국면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. 고용(47.4→49.1)도 개선
- 또한 공급자 운송(61.9→58.3)의 둔화는 투입가격 하락 및 공급 병목 완화 신호로 해석. 다만 전반적인 노동자 부족 현상은 여전한 상황. 산업별로는 도매, 공공부문, 광물업 등이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농업, 소매, 금융 부문의 활동은 위축
- Oxford Economics의 Oren Klachkin은 경기 연착륙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, 경제여건은 금년에 경기침체를 회피할 정도로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평가
- Capital Economics의 Michael Pearce는 ISM 서비스 PMI의 움직임을 반영할 경우 금년 성장률은 2%에 이를 것으로 추정. 또한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과 차입비용 감소 등을 고려 시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
- 한편 6월 제조업 수주도 전월비 2.0% 늘어 예상치(1.1%) 및 5월(1.8%) 대비 높은 수준. 이번 결과는 최근 금리상승 영향으로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나, 당초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의지를 재확인

-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슈카리 총재는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,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고려할 경우 매우 낮다고 지적. 인플레이션 목표(2%)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금리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
-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올해 정책금리가 3.75~4.00%에 달하는 것이 적절하며, 특히 조기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발언.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
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9월에 0.5%p 인상이 적합하며, 상황에 따라 0.75%p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.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

■ 유로존 6월 소매매출, 전년동월비 감소.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

- 해당 매출은 전년동월비 3.7% 줄어 전월(0.4%) 대비 낮은 수준.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부진(0.4%→-1.2%). 이번 결과는 실질소득 감소에 더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가 종료되면서, 향후 소비가 둔화될 수 있음을 제시

■ 독일 총리, 가스 터빈 작동이 준비되어 있으며 원할 경우 러시아로 운송 가능

- 숄츠 총리는 러시아로의 운송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며, 운송 문제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. 이에 러시아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터빈이 제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부족해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

■ 독일 6월 무역수지 흑자, 전월비 증가. 고물가에 따른 명목 수출액 확대 등에 기인

- 무역수지 흑자는 예상치(2억유로) 및 전월(8억유로)보다 높은 64억유로를 기록. VP Bank의 Thomas Gitzel은 이번 결과가 물가 상승에 따른 수출 명목금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조정 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

■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 PMI, 15개월래 최고치. 봉쇄조치 완화 등이 배경

- 해당 지수는 55.5를 기록해 전월(54.5) 및 예상치(48) 상회. 이는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자 신뢰 개선 등이 반영. China Beige Book의 Leland Miller는 봉쇄 완화로 최악의 상황이 끝났으나 투자와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

■ OPEC+, 9월 증산 목표를 일일 10만 배럴로 제시. 유가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

- 전문가들은 해당 증산 규모가 세계수요의 0.1%에 불과하여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.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은 최근의 유가 하락을 반영한 것이며, 증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 피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3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(전월비): 1.1%, 5월(0.5%), 예상치(1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강연,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
- 미국 7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및 6월 무역수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회사채 발행 증가, 향후 경기침체 충격 완화시킬 소지 - 블룸버그

(Corporate Bond Market Didn't Get the Recession Memo)

- 최근 경기침체 우려에도 회사채 발행이 확대. 그 동안 회사채 발행이 부진했는데, 이는 회사채 금리 상승(적격투자등급 기업의 경우 회사채 금리가 작년 2%에서 금년 5%까지 상승)에 따른 급격한 금융비용 증가 부담 때문
- 그러나 최근 회사채 금리 하락 및 경기침체 도래 이전 자금확보 필요성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재차 증가. 이처럼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

■ 최근 개도국의 위기 상황, 선진국의 대처가 중요 - Financial Times

(Now is not the time to neglect developing economies)

- 전세계적으로 다발성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도국의 부채 위험이 심화. 하지만 최근 상황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에 선진국은 자국 문제 해결에만 집중. 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저소득국가의 자본유출 및 부채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
- 채무조정 협상에 소극적인 중국이 제공한 부채 규모가 큰 것도 전통적인 방식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. 세계경제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금융과 공급망 등에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시점

■ 미국의 경기침체 대응, 임금 조절을 통한 실업 축소 방안을 고려할 필요 - 블룸버그

(‘Jobful Vibecession’ Will Keep Workers on the Payroll)

■ 이탈리아 국채시장 변동성, 국내 선거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확대될 우려 - WSJ

(Italy's Bond Market Pressures Are Building Despite ECB Support)

■ 영란은행, 고물가 고착화 이전에 강력한 대처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Bank of England risks falling behind the curv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